

David Howard 박사, Joshua-Ruth, 세션 16, 북부 캠페인 및 요약

© 2024 데이비드 하워드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 사람은 여호수아서부터 롯기까지를 가르치는 David Howard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6, 여호수아 11장부터 12장, 북부 캠페인 및 요약입니다.

인사말.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마지막 전투를 생각해 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가나안 땅 북쪽 지역입니다. 이 내용은 이 책의 11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번 보고 언급한 것처럼 성경을 그 장으로 펼치면 9장, 10장, 11장이 각각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가나안 왕들의 연합으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함께 연결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경우는 산간 지방 왕들의 연합입니다(9장 1절과 2절). 두 번째 경우는 예루살렘 주변의 남방 왕들의 연합입니다. 10장 1절 이하에서는 북쪽에 있습니다.

을 대적하는 주인공인 왕은 하솔 왕 하초르 인 야빈 또는 야빈 이라는 왕입니다. 그곳은 갈릴리 바다보다 훨씬 북쪽인 나라 북부에 있는 매우 유명한 도시입니다. Hazor, Hatzor는 20세기에 발굴되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언덕이고 매우 중요한 도시임이 분명하며 많은 것들이 그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집한 사람들의 명단은 전국 각지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만큼 지리적으로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3절에서는 여부스 사람들도 언급합니다. 여부스 사람들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알려지게 된 지역의 주민들이었는데, 그곳은 남부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북쪽에서 벌어진 전투에는 적어도 남쪽에서 온 일부가 포함된 연합군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한 위협의 수준을 인식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항하기 위해 연합군을 결성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위협을 가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해변의 모래 같이 많은 무리와 심히 많은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오는 것을 주목하라. 그래서 우리는 군대의 중추인 전차에 대해 다른 부분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흥미로운 작은 사실이 있습니다. 수레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메르카바(Merkabah)이다. 현대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오랫동안 주력 전차를 메르카바 전차라고 불러왔습니다.

따라서 이는 전차가 고대의 현대 탱크와 동등하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매우 인상적인 무리입니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숫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가 전달되는 방식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단강 물이 그들의 강둑에 범람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3장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해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물을 막으시면서 직면하게 되는 인상적인 도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인상적인 도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신 이 거대한 무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며 다시 그를 격려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그는 그들을 온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고 그들의 말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대단한 승리입니다. 흥미롭게도 전투가 설명되는 방식에는 예를 들어 10장의 기브온 전투나 여리고 또는 아이 전투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여기에 설명된 전투의 세부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간략한 요약 세부사항으로 언급되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8절에서 아주 먼 길로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9절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때에

돌아와서 하술, 하술을 점령하고 칼로 왕을 쳤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하술을 불로 살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전 문맥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불태운 것으로 언급된 성읍은 여리고와 아이, 그리고 지금은 하술 세 성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고고학 기록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도시를 광범위하게 불태우지 않았기 때문에 파괴적인 방식으로 존재했다는 흔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언급한 1200년경 또는 그 조금 이후의 파괴층은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불태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한 일에 대한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을 쫓아내고 살해했지만 도시를 파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짓지 않은 성읍들, 자기들이 짓지 않은 집, 자기들이 파지 않은 웅덩이, 자기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 등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 대한 또 다른 표시입니다. 13절, 산에 있는 성읍들 중에 이것들은 세포라 불리는 큰 것들이니라. 확실히 가나안에서는 방어 목적으로 눈에 띄는 곳에 도시를 건설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벽이 세워지고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수십 년, 심지어 수백 년 동안 그것은 번창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도시는 파괴되고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좋은 위치였기 때문에, 보통 물 공급이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또 다른 도시가, 폐허 위에, 그리고 결국에는 더 많은 도시가 재건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레벨 위에 하나씩 구축되는 레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 꼭대기에는 이런 종류의 언덕이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고고학적으로 우리는 이를 파헤쳐 다양한 수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일찍, 더 아래로 내려갈수록, 우리는 더 일찍 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지와 인근 지역의 고고학적 발굴의 주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 말 위에 서 있던 도시 중 어느 것도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히브리어 단어가 전해진다. 이스라엘이 하솔만 빼고 불태우고 전리품을 취하였느냐?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주목해 보세요.

순종의 또 다른 예. 우리는 책 전반에 걸쳐 순종이라는 주제를 언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종인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더라.

그래서 조슈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남김 없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그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에는 13장의 끝 부분에서 했던 것과 같은 일종의 요약 진술이 있습니다. 10장 40절에서 42절은 남쪽에서의 캠페인을 요약합니다. 여기에 북부에서의 캠페인에 대한 요약 성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온 땅과 산간지방과 온 네겅과 온 고센 땅을 차지했습니다(16절).

남쪽, 저지대, 아라바를 말하는 것 같은데 북쪽으로 17까지 올라와서 귀쪽으로는 할락산이요, 바알신과 레바논 골짜기와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이 함락되느니라 왕은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흥미로운 진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으로 더불어 오랫동안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장들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실제로 9장, 10장, 11장, 특히 10장과 11장을 읽는 데 몇 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또는 며칠 또는 몇 년 안에 일어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몇 주. 하지만 이는 우리에게 이러한 전투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만큼 쉽지 않았을 수도 있고, 확실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렸을 수도 있다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책의 실제 전투 단계가 5~7년이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았던 시대가 앞으로 25년 정도 더 있었을 것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서가 다루는 기간은 아마도 30년에 가깝고, 25~30년일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압축된 시간 안에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지표를 제공하는 한 구절입니다. 19절, 기브온 주민 외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없더라.

그리고 20절에는 때때로 다루기 어려운 진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도시들이 화평하지 못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박케 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워서 멸망에 바쳐야 하리라.

또 하람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비를 받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수준에서 다루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신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한다는 생각을 표현하는 세 가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때로는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경우도 있고, 거기에는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용어는 출애굽기의 재앙 장들에서 20번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바로는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박하게 하시는 것은 끝까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신 것은 일종의 그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신의 뜻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바로와 성향과 소망은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를 아주 가혹하게 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책의 앞부분에서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이

매우 두려워하여 이스라엘과 여리고와 아이를 반대하고 나중에는 반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길로 그들이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언급했듯이, 여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선택과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라합이 그 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또 다른 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분명히 몇 가지 예외를 허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려 하셨다는 것이 절대적인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낙 족속 또는 아낙 족속이라 불리는 무리와 대결하는 장의 끝 부분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산간 지방에서 왔으므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진멸에 바쳤느니라. 21절 끝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22절).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온 땅을 점령하여(23절)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11절의 마지막 진술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쳐서 쉬었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트란스요르단 지파들에게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1장 이후 처음으로 안식에 대해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 책에서 발견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경이 여호수아서에 이르는 전체 궤적의 일부는 그들이 안식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말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는 그 땅이 안식했다고 말하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음은 14장 15절에 나오는데, 지금은 땅 분배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책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15절의 마지막 부분에는 그것이 그 장의 마지막 문장이기도 하며,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신명기, 사무엘서, 열왕기에는 땅에서의 안식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이 일이 여섯 번 반복되는데, 그 땅이 x년, 40년 또는 80년 동안 안식을 누렸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전체 역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신명기 12장과 25장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점은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도 안식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히브리서에서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에게 안식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구약성서의 안식일과 대조됩니다(히브리서 8장 4절).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시작된 안식일과 대조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대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수아서의 관점에서 이 안식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영원한 휴식은 아닙니다. 영적인 안식은 아니지만, 놓인 전쟁으로 인한 일시적인 안식이다.

그래서 이후 분위기가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책의 나머지 부분은 훨씬 더 정적이고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이 진술은 이 책의 다음 부분을 위한 무대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미해결 부분이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슈아는 강력한 리더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분배하는 새로운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의 첫 번째 섹션의 마지막 장인 12장으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12장은 실제로 우리에게 새로운 스토리라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전투가 완료되었으며 우리는 토지 분배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2장이 책의 첫 번째 섹션 전체에 대한 부록인 마무리를 형성하기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11장 16절부터 23절까지에 서술적 요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은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반복합니다. 즉, 정복한 왕들과 영토의 목록을 제시합니다.

12장 1절을 다시 반복하면,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께서 쳐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그 땅의 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몇몇 왕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는 6절에 여호와와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백성을 쳐부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 여섯 구절은 하나님께서 모세 아래서 행하신 일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7절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패한 왕들과 백성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땅을 빼앗고 7절에 기록된 것을 주목했습니다. 본문 중간에 여호수아가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그들의 할당대로 기업으로 주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앞서 11장에서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책의 다음 부분인 13장부터 21장까지에서 보게 될 땅의 분배와 관련하여 여호수아가 제사장 엘아자르와 함께 권위 있는 위치에 서게 될 것에 대한 미리보기를 형성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지금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땅에 대한 소유권을 영원히, 영원히 부여하지 않으십니다.

그 땅은 언제나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땅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처음으로 여호수아 자신이 실제로 그 땅을 지파들에게 주는 위치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다음 여기에 7절부터 시작하여 왕들의 목록이 있지만 여기에는 두 개의 다른 섹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7절과 8절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토와 땅의 일부에 대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는 왕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세어보면 31명의 왕이다.

24절에 언급된 내용인데 하나씩 조심스럽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여리고 왕이 하나입니다. 하나는 벧엘 옆에 있는 아이 왕이요.

예루살렘 왕, 하나. 헤브론 왕, 하나, 등등. 따라서 여기에서는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보관하고 전수한 목록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통합할 수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는 매우 신중하게 구성된 목록입니다.

현재는 스프레드시트에 있고 여기 등의 열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성을 부여합니다. 예, 우리는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왕을 식별할 수 있고 도시를 식별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에 대한 영토를 식별할 수 있다는 진실한 느낌을 줍니다.

따라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서술적 설명은 사실 6장부터 11장까지 우리에게 사물의 스토리라인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데이터, 즉 사실과 숫자에 대한 원시 데이터입니다. 좀 어울리는 방법이네요. 읽기 힘든 장이다.

우리의 관점에서 읽는 것은 별로 흥미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도시 중 상당수가 어디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책의 저자와 그가 글을 쓰는 청중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땅은 그들에게 이 땅이 그들의 것이며 이 땅은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여기에 정복된 왕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토의 일부이며 13장에서 21장까지의 토지 분배에 관한 실제 세부 장으로의 도입을 위한 기초를 형성합니다.

이 사람은 여호수아서부터 룯기까지를 가르치는 David Howard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6, 여호수아 11장부터 12장, 북부 캠페인 및 요약입니다.